

“망망대해 불빛 비취 나아갈수 있겠다”는 위안 얻어

2025 광주일보 신춘문에 신인작가 3인 인터뷰

소설 김근수 “글의 객관성 담보됐다는 사실에 다소 안도”
시이문희 “큰 짐 하나 내려놓고 다시 짐 챙겨 떠나는 기분”
동화 수이레 “마음 속 ‘이야기 씨앗’ 꺼내 꽃으로 키울 터”

문학출판계 새해의 뜨거운 뉴스 가운데 하나는 신춘문예다. 주요 일간지 신년호에 부면별 당선작과 당선자가 발표되면 문정을 비롯해 문학애호가들, 독자들과 시선이 집중된다. 투고했던 응모자들은 올해는 어떤 이가 신춘문예 당선의 영예를 안았을까 라는 궁금증과 함께 내년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된다.

기자는 2025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3명 신인작가들과 얼마 전 전화와 지면으로 인터뷰를 했다. 김근수(소설), 이문희(시), 수이레(동화) 세 신인들에게 신춘문예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는 기쁨과 아울러 앞으로 문학의 길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등이 느껴졌다.

김근수 소설가는 당선 소식을 듣는 질문에 “글의 객관성이 일정부분 담보되었다는 사실에 다소 안도하게 되었다”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이에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비추어 줘, 그것을 좌표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문희 시인은 “작년 한식날 아버지 묘에 잔치를 일한 기억이 났다”며 “나라도 주변도 다소 우울한 날들이어서 산책하며 혼자 울다 웃다 했다. 큰 짐

하나를 내려놓고 다시 짐을 챙겨 떠나는 사람처럼 다독이며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수이레 동화작가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다가 당선 소식을 듣고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다”며 “그날 밤 동화를 쓰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감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의 소감에는 떨림과 답답함이 담겨 있다. 신춘문예에 대한 꿈을 오래전부터 꾸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인작가들은 어떻게 문학과 창작을 공부했을까.

“학부 때 영문학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문학을 접하게 됐고, 집중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다. 그 외에 문학과 창작을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다. 다만, 문학 작품을 읽으며 서사와 스타일을 나누어 보는 버릇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그간 공부하게 됐으니, 지금부터 문학에 진심이 되어 보려 한다.”(김근수)

“백서 시집을 시작으로 많은 시인들의 시를 필사했다. 고전부터 현대시를 쓰는 시인에 이르기까지 필사노트 만해도 6권이 넘는다. 필사의 느낌과 기



소설 김근수

분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우수문예지와 수상시집, 신춘문에 당선집 등을 읽었다. 많이 읽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이라 생각했다.”(이문희)

“여동생이 그림책과 동화책에 삽화를 그리며 그림작가다. 결혼 후 퇴사를 한 저에게 “언니는 글 쓰는 걸 좋아하니, 그림책에 글을 한번 써봐”라고 권해주었다. 글을 쓰면 자기가 그림을 그리겠다면서, 막상 글을 썼는데 동생이 너무 바빠서 그림을 못 그려주는 상황이 됐고 할 수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동화를 공부하게 됐다.”(수이레)

그러나 창작을 시작한다고 바로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 글쓰기는 마라톤과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맞닥뜨리게 되고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불안과도 싸워야 한다.

김근수 작가는 신춘문에 응모하기 전 장편소설을 출간한 경험이 있다. 19세기 말 조선을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인데, 완성하기까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 관련 도서를 100권 넘게 공부했다고 한다. 그는 “5년여를 고부하면서 주말마다 한 줄씩 쓰자는 심정으로 결국 2020년 1월에 세상에 내놓게 됐다”며 “나중에 아내가 ‘글을 쓰는 동안 절필만 수십 번 선언했다’고 하더라”며 웃었다.

이문희 시인은 학생 신분인 아내 주부로서 시를

공부하다보니 먼 곳의 강이나 일박을 해야 하는 캠프는 꿈도 못 꿔다. 그러면서 어느 유명 시인의 강의를 있던 캠프에 갔던 이야기를 꺼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갔는데 ‘밥솥에 밥을 하는 중에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였다. 복도에서 한참을 전화로 사투를 벌이는데 강사가 다 끝나고 사람이 나오더라”고 말했다.

수이레 동화작가는 동화 공부를 시작하지 10년이 넘었지만 결실이 없었다. 재능이 없는 걸까?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다는 것이다. 동화공부를 했으니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 독서논술 자격증을 땀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동화를 그만 쓰겠다고 다짐한 순간부터 매일 동화를 읽고 미련이 남았다”며 “그러다 제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전했다.

3명의 시인들은 창작 외에도 저마다 의미있는 사회활동을 했거나 하고 있다. 김근수 작가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회사가 혁신도시로 옮겨오면서 나주에 정착했다. 한국전력공사(2003~2022)를 거쳐 현재 한전CSC에 근무하고 있다.

이문희 시인은 이십대 초반에 연극을 했는데 소극장 무대에서 두달 정도 정기 공연을 했다.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대사에 감동을 했는지



동화 수이레

물이 났던 기억이 있다.

수이레 동화작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 디자이너로 일했는데 글 솜씨 덕분에 기획자로 일하게 됐다. 이후 다양한 온라인 전시를 기획했으며, 동화를 공부하고 독서논술 선생님이 됐다.

3명의 신인작가들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 신춘문에 당선은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글을 써도 좋다는 ‘자격증’에 불과하다. 앞으로 활동 여부에 따라 문학의 결실은 달라질 것이다.

“밀쳐 두었던 장편소설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다. 시를 읽고, 음악을 듣고, 수병을 걸으며 일상을 긍정하겠다. 그리고 쓰겠다.”(김근수)

“읽고 싶은 책을 몇 권 주문했는데 느슨한 시간에 빨리 읽고 싶은 마음이다. 짬뽕 돈 넷플릭스 영화도 볼 예정이다. 그동안 쓰느라 예전 5년만의 휴식인데 더 신나는 게 뭐가 있을까 공리하고 있다.”(이문희)

“이제는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이야기 씨앗을 꺼내 꽃으로 키워보려 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가보려다. 제가 가진 꽃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수이레)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적 가치·즐거움 시민들과 함께 공유 ‘동구동락’

동구 미술은행 소장 작품 전시

15일까지 미로센터·무등갤러리

문화적 가치와 즐거움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다.

동구 미로센터와 무등갤러리에서 15일까지 열고 있는 ‘동구동락(東區同樂)’.
새해를 맞아 동구 미술은행이 소장한 작품들을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동구동락전은 의미있는 전시다. ‘동구와 함께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처럼 소장품을 매개로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장에는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모두 90여 점이 선보인다.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공예품 등 소장품 면면도 다채롭다.
우리 고유의 미학적 특질을 엿볼 수 있는 한국화를 비롯해 작가 개인의 개성적인 작품 세계가 투영된 서양화, 오랜 시간 작업해온 공예가 담긴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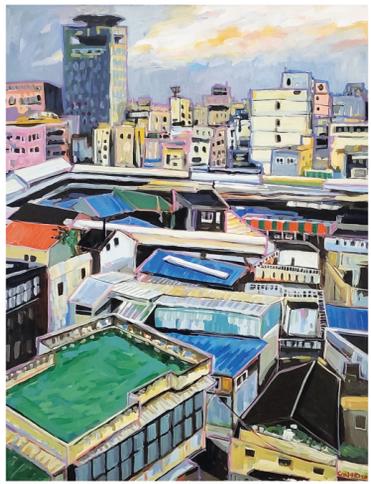
화, 고아한 풍취가 뽀서예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소담하면서도 멋스러운 조각과 공예품, 우리의 은은한 미학이 구현된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면면은 보는 이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전시는 모두 네 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동(東)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담았으며, 구(區)는 지역 특유의 정체성을 함의한다. 동(同)은 함께하는 조화를 뜻하며, 락(樂)은 일상의 기쁨을 맞본다는 뜻이다.

시대와 장르를 넘어 동구동락의 의미를 관람객 나아가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다. 연초 전시장을 찾는 이들은 미술품을 매개로 새해 소망은 물론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이보미 센터장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작품이 담고 있는 사회와 문화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예술의 감동과 기쁨을 나누고 새 희망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강선호 작 '대인시장 풍경'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장면.

(ACC 제공)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운명’ 영상으로 감상

‘ACC 수요극장’ 15일 문화정보원 B3 극장3

비극적 ‘운명’을 거슬러 빛으로 나아갔던 베토벤의 선율을 영상으로 만나.

ACC가 ‘ACC 수요극장’ 일환으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을 오는 15일 오후 7시 문화정보원 B3 극장3에서 펼친다. 국내·외 엄선된 우수공연 작품을 영상으로 선보이며, 올해 총 22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운명’ 1-4악장을 고화질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베토벤 연구의 권위자인 음악학자 루이스 록우드는 이 작품에 대해 “베토벤이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악장은 단호한 주제선율을 통해 격양된 분위기로 시작한다. 이어 2악장에서는 첼로 파트가 제시하는 은화한 주제가 앞선 악장에서의 분위기를 잠시 잊게 한다. 트럼펫을 위시한 금관악기 화음 등이 제시되면서 주제 선율을 변주한다.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저음을 현악과 목관악기가 받는 3악장은 울려 퍼진다. 서두에 울렸던 주제를 돌연 제시하는 한편, 현악기군이 서로의 음악을 핏퐁처럼 주고받는 부분이 흥미롭다.

끝으로 4악장은 준엄했던 단조 화성을 지우고, 앞이 환하게 뚫린 듯한 다장조 화음으로 채워진다. 전에 없는 ‘승리의 선율’을 울려 퍼뜨리며 악장이 마무리된다. (지휘는 다비트 라일란트가 맡았으며 총 50분간 상영)

ACC 수요극장 관계자는 “우수한 국내의 무대를 지역에서 고화질 영상으로 만나 이번 기획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2월 국립창극단, 국립오페라단 등 무대로 이어진다”며 “정력을 잃었던 베토벤이 제시하는 비극적 선율은 ‘운명’을 거슬러 빛으로 나아가면서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고 했다.

무료 진행, ACC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상반기 남도소리올림터 대관

558석 규모...5월31일까지 접수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2025년 상반기 남도소리올림터 대관’을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558석 규모의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을 오는 2월 1일~6월 30일 기간 내 대관 신청 가능(일자 개별선택).

남도소리올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하며, 공연계획서와 부대시설 사용계획

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관 시 오케스트라 피트나 사막(반투명 스크린), 보편대, 덧마루를 비롯해 무용장판 등 무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사용료 있음). 이외 무대조명과 드라이아이스기, 스모그 기기나 빔프로젝터 등 부대시설도 마련돼 있다.

사용 30일 전 접수해야 하며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 가능, 우편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22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운영팀 대관담당자 앞으로 보

내면 된다. (접수 후 전화 연락 요망)

대관 가능 요일은 매주 일·화·수요일로 1일 대관의 경우 당일 설치/공연/철거 가능해야 한다.

한편 남도소리올림터는 연면적 5193㎡에 지상 3층으로 건립됐으며 연습실과 사무실, 장비 보관실 등으로 구성된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국내·외 공연예술인과 단체가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남도소리올림터 대관을 개시한다”며 “전통문화의 기쁨을 살린 한옥형 공연장에서 저마다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향기를 펼쳐보셔도 좋을 듯하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장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